

이야기 상황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이해: 의도추론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배성희** 한세영***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al Display Rules
by Episodes: Interaction Effects of Intention Reasoning and Gender
Bae, Seong Hee Han, Sae-Young

본 연구는 이야기 상황(정서의 종류와 대상) 및 의도추론유형과 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가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4-5세의 유아 144명을 대상으로 4가지 이야기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의도추론유형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실험면접을 실시하였다. Pair t 검증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상황 즉, 정서의 종류(긍정정서와 부정정서)와 관계의 대상(어른과 또래)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는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이야기 상황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이해에 대한 의도추론유형과 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바, 긍정정서-어른이야기, 부정정서-어른이야기, 긍정정서-또래이야기라는 이야기상황에서는 의도추론유형의 주효과만 유의하였으나, 부정정서-또래이야기라는 이야기 상황에 대해서는 의도추론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정서표현규칙 이해, 의도추론, 이야기 상황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제 1저자 : 충북대학교 박사(E-mail : bsh0757@hanmail.net)

***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E-mail : evenhow@ewha.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개인이 속한 사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규범이 있고, 개인은 처해진 상황을 잘 판단하여 다른 사람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어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도 마찬가지이며 유아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정서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과 수용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한 정서표현은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영유아기에는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사회화된 정서표현을 학습하게 된다.

정서표현은 유아가 느끼는 정서를 얼굴표정이나 언어적 표현 등으로 겉으로 표현하는 정서를 말한다. 유아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정서표현은 정서조절 및 표출규칙에 대한 학습상황을 제공한다(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유아는 다양한 정서를 웃거나, 울거나, 찡그리거나 소리지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만일 친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과정이 우스운 상황일 경우 친구 앞에서 웃으면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표현하면 친구를 위로해주는 표현이 된다. 이처럼 대인관계 맥락에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표현할 때 실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또는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하는지는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사회화된 능력에 속한다.

정서표현규칙(emotional display rules)은 어떤 정서를 표현해도 되는지 또는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상황을 명백하게 기술한(Gross & Ballif, 1991) 일련의 사회적 규칙을 말하며, 유아가 정서표현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로 느끼는 내적인 정서 상태와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를 구분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서표현규칙은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감정표현 사이의 부조화를 인정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정서표현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학자들은 실제로 느끼는 정서에 대해 실제정서, 내적정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실제 느끼는 정서와는 다르게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를 외적 정서표현, 표현정서 등의 용어로 기술하였다.

실제정서와 표현정서 간의 부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상황의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유아는 3세 정도에 이르러야 실제로 느끼는 정서와 다른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Kieras, Tobin, Graziano, & Rothbart, 2005), 4세 아동은 정서를 숨기는 작업에서 실제정서와 표현정서 구별이 능숙하지 못하였으며, 6세 아동은 실제정서와 표현정서를 훨씬 더 잘 구분하여 실제정서와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정서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 Joshi & MacLean, 1994). 또한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복잡한 인식능력과 사회적 능력 때문에 학령기에 상당히 발달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여(Cole, 1986; Cole, Michel, & Teti, 1994; Gnepp & Hess, 1986; Saarni, 1979;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 정서표현규칙의 발달 시기와 발달의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연구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실제정서와 표현규칙이해를 살펴본 연구(김혜리, 2000; 장운정, 신유림, 2006; 이승은, 2011; 심현주, 이순형, 2006)와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한유진, 유안진, 1998; 이미경, 2005; 정임숙, 2008; 한혜원, 2003) 등이 있고 그 외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우리나라 아동에 적합한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유아들이 실제 정서를 숨기고 가장하여 표현하는 정서표현규칙은 유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하는 상황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요인으로는 정서의 종류와 정서를 표현해야하는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는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정서의 종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슬픈 데도 행복한 척 하거나 아픈데도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숨기고 실제와 달리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더 이른 시기에 발달한다(Kieras et al., 2005).

두 번째 상황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유아가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다. 정서표현규칙의 발달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공통적인 사회화 과정과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각 문화마다 사회적 규범과 전통에 따른 독특성을 가질 수 있다. 문화적으로 특수한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습득은 사회적으로 조화를 강조하고 사회적 규칙과 위계를 우선시하는 일본이나 인도 네팔의 Chhetri-Brehmin과 같은 집단적 사회에서 더 일찍 일어난다(Cole & Tamang, 1998; Matsumoto, 1990; Joshi & MacLean, 1994; Novin, Banerjee, Dadkhah, & Rieffe, 2009). 유아를 사회화시키는 성인이 아동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유아들이 정서표현규칙 이해를 더 빨리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하는 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정서규칙의 이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 탐색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아는 출생 초기부터 성인인 주 양육자로부터 사회화되고 성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간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험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배우고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래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와 달리 수평적 관계이며 처해진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용이해지고 정서적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듯 어른과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는 유아의 정서적 경험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이로 인해 두 관계에서의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발달할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관계의 대상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발달에 관련된 상황요인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가 부딪히게 되는 정서의 종류와 정서를 느끼는 대상의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나아가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발달에 관련된 유아 내부의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 그리고 정서표현의 의도를 추론하는 유아의 인지적 성향, 두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성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Saarni(1984)는 여자아이들이 정서표현규칙의 이행에서 뛰어나다고 제시한 반면,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Jones, Abbey, & Cumberland, 1998)와 어느 정도 실제정서와 표현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 성차를 고

려하지 않았던 연구(Gardner, Harris, Ohmoto, & Hamazaki, 1988; Harris et al., 1986)도 있어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발달에 있어서의 성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내부요인은 정서표현의 의도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이다. 유아가 정서표현규칙을 이해한다면 정서적인 순응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순응은 약간의 거짓과 속임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실제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려한 정서로 대체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요구되는 감정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정서를 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즉 행동적 표현의 동기나 의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은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발달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표현규칙의 의도를 추론하는 유형은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친사회적 의도와 자기보호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Begeer, Banerjee, Rieffe, Terwogt, Potharst, Stegge, & Koot, 2011; Misailidi, 2007). Carlo, Knight, Eisenberg 그리고 Rotenberg(1991)에 따르면 정서표현규칙 이해수준이 높은 아동이 더 친사회적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도를 구분하는 것도 명확해진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정서를 표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또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호적 의도를 가지고 정서를 표현한다(Gosselin, Warren, & Diotte, 2002). 이에 덧붙여 규준유지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거나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를 맞추기 위해 그에 적합한 정서를 표현한다. 이러한 의도추론 유형을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상황과 자기보호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연구도 있으며(Gnepp & Hess, 1986; Josephs, 1994), 아동에게 주인공이 정서를 숨기는 이유를 질문함으로써 주인공의 의도를 추론하게 하는 연구(장윤정, 신유림, 2006; 이승은, 2011)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서표현규칙 연구들은 이야기 상황에 따라 정서의 종류를 살펴본 연구(Josephs, 1994; Joshi & MacLean, 1994; Harris et al., 1986), 정서표현 대상에 따라 살펴본 연구(Joshi & MacLean, 1994)와 의도를 살펴 본 연구(Begeer et al., 2011; Gosselin et al., 2002; Jones et al., 1998) 등 각각 단편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표현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인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특성 및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가 반영되어 정서표현규칙이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국내문화에서는 성인과 아동간의 위계적 관계가 강한 편으로, 수평적 관계가 보편적인 서구문화를 배경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성인을 대상으로 나타내는 정서표현규칙이나 의도추론유형이 또래를 대상으로 할 때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발달에 관련된 상황요인을 유아에게 이야기 상황으로 제시하여, 정서의 종류와 정서표현 대상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정도를 살펴봄에 있어 정서의 종류를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로, 정서표현 대상을 성인과 또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 성에 따른 차이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야기 상황마다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상황과 성에 따른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정서표현규칙 이해와 의도추론 유형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른지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유아기 정서발달

과 정서적 인지능력의 발달을 확인하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사가 유아를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야기 상황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및 의도추론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가?

1-1) 이야기 상황에 나타난 정서의 종류(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는 차이가 있는가?

1-2) 이야기 상황에 나타난 정서표현 대상(어른대상과 또래대상)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이야기 상황별로,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5개소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총 144명의 유아들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만 4세와 만 5세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3세 유아는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연구에서 우연수준으로 수행하였으며(이승은, 2011), 만 4세 유아는 실제정서를 이해하고 정서표현규칙 사용을 구분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선행연구에 따른 것이다 (Gopnik & Astington, 1988; Moses & Flavell, 1990).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만 4세가 75명(52.1%)이고 만 5세가 69명(47.9%)이었으며, 그 중 남자는 79명(54.9%), 여자는 65명(45.1%)이었다.

2. 측정도구

1) 유아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와 의도추론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Joshi와 MacLean(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적 상황 이야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국내에서는 이승은(2011), 장윤정과 신유립(2006)이 사용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예비실험을 거쳐 우리나라 상황과 유아에게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상황마다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려진 삽화를 함께 제시하였다. 유아의 실제정서와 표현정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정카드 3장(우는 표정, 무표정, 웃는 표정)을 여아용(여아가 주인공인 경우)과 남아용(남아가 주인공인 경우)으로 제시하였고, 미술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가상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성은 대상 유아의 성과 일치시켰으며, 그림 자료에 등장하는 주인공

은 피험자인 유아의 성과 일치시켰다. 그림자료(삽화)의 얼굴표정은 유아가 표정을 추론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시하지 않았고 유아가 직접 표정을 말하거나 그림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편의 가상 이야기를 사용하였으며 두 편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어른대상, 또래대상)과 두 편의 부정적 정서(어른대상, 또래대상)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고안하였다. 정서를 유발하는 가상적 상황의 이야기 네 편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정서유발을 위한 가상적 이야기의 상황

정서 종류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표현	가상적 이야기 상황
긍정적 정서	어른대상	손님으로 오신 친척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집에서 놀 때 시끄럽다고 주인공을 놀지 못하게 하여 불편하게 하였다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심
	또래대상	어린이집 친구들과 같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나가서 주인공 혼자만 최우수상을 받음
부정적 정서	어른대상	엄마가 주신 생일 선물이 기대했던 것이 아님
	또래대상	자른 머리를 보고 친구들이 놀림

<표 2> 의도추론 유형 범주의 정의 및 반응의 예

정서표현규칙 의도추론 유형	범주 정의 및 반응의 예
친사회적 의도추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을 보호한다. 예: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친구가 기분 나쁠까봐
규준유지적 의도추론	도덕적인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고 한다. 예: 어른이니까/ 예의를 지켜야하니까
자기보호적 의도추론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비웃음, 꾸중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예: 친구들이 따돌릴까봐/ 친구가 괴롭힐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직접표현	다른 의도 없이 감정이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다. 예: 기쁘니까/ 슬프니까/ 친구들이 놀려서
기타	이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예: 그냥요/ 모르겠어요/ 맥락이 맞지 않는 대답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이야기마다 네 가지 질문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유아가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며, 유아가 통제 질문에서 틀린 대답을 하거나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통제 질문을 반복하여 유아가 이야기 상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인공이 이야기 상황에서 느끼는 실제정서를 묻는 질문으로 유아의 실제정서 이해를 알아보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이야기 주인공이 실제로 느낀 정서를 상대방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묻는 것으로 이 질문을 통해 정서표현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유아가 이 질문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주인공의 실제정서와 다르게 표정을 보이면 1점, 실제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네 번째 질문은 주인공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주인공의 정서표현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을 살펴보았다. 반응의 범주와 예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질문에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도록 돕기 위하여 그림 자료의 주인공은 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 2>).

3. 실험절차

1) 예비실험

본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유아의 정서표현규칙 이해와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연구도구와 검사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실험은 본 실험의 연구 대상과 같은 만 4세와 만 5세 유아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용 검사도구 중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한 이야기 여섯 편 가운데 친척할머니의 방문과 아빠의 선물 이야기는 유아 자신의 상황을 감정이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친척할아버지의 방문과 엄마의 선물로 대상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야기 상황에서 유아는 친척할머니가 자신을 불편하게 해도 부모님이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는 경우 친척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은 ‘엄마, 아빠 없을 때 무섭지 않다’ 는 위로를 받았고, 아빠의 선물은 유아들에게 혼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주니까’ 라는 생각으로 표현규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유아에게 그림 자료를 제시하며 들려주는 이야기속의 아동 이름은 한명의 동일한 이름일 경우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여 이야기 상황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여섯 편의 이야기 중 두 가지 이야기는 면접 시간의 지연으로 유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네 편의 이야기를 면접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그 외 질문지와 유아용 그림 자료 등은 연구자가 준비한 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차 예비실험은 본 연구자와 실험 면접에 참여할 연구자 1명이 유아와의 면접과정에서 통일된 질문 및 기록지 작성방법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면접자 간 차이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 4세와 만 5세 유아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와 함께 유아 실험 면접에 참여한 면접자는 아동복지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한명이었다.

2) 본실험

본실험은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되었다. 우선 어린이집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연구 협조를 승낙한 5개의 어린이집 만 4세와 만 5세반 부모에게 연구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동의서가 회수된 유아의 경우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아의 정서표현규칙 이해 및 의도와 관련된 면담을 유아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유아 면접은 어린이집의 교사휴게실이나 관찰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 한 명씩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유아와 라포 형성을 위한 인사와 연구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유아에게 표정 그림을 보여주고 표정을 구분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아가 응답하게 하여 이야기와 질문 유형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만일 유아가 이야기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아가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유아 한 명당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약 8분에서 10분 정도였다.

3) 면접자 간 동질성 검증

면접자 간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긍정정서-어른이야기($t=-.68, p>.05$), 긍정정서-또래이야기($t=-.03, p>.05$), 부정정서-어른이야기($t=-1.68, p>.05$)와 부정정서-또래이야기($t=-.74, p>.05$) 항목은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면접자에 따라 어떤 항목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 면접자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표 3> 면접자 간 동질성 검증

	면접자		<i>t</i>	유의확률
	1	2		
긍정정서-어른이야기	3.76±1.38	3.94±.98	-.68	.49
긍정정서-또래이야기	2.99±1.68	3.00±1.81	-.03	.97
부정정서-어른이야기	3.07±1.46	3.56±1.44	-1.68	.09
부정정서-또래이야기	3.35±1.20	3.53±1.30	-.74	.45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정서표현 대상과 정서 유형에 따른 실제정서 이해와 정서표현규칙 이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의도추론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제정서 이해와 정서표현규칙 이해에 대한 성,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하였다. 이야기 상황별 실제정서의 이해와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이야기 상황에 따른 실제정서의 이해와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및 의도추론 유형의 차이

1) 이야기 상황에 나타난 정서의 종류(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따른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차이

정서의 종류는 긍정정서-어른이야기와 긍정정서-또래이야기의 점수를 평균 내어 긍정정서이야기로 구분하고 부정정서-어른이야기와 부정정서-또래이야기의 점수를 평균 내어 부정정서이야기로 구분하였다. 이야기 상황에 나타난 정서의 종류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규칙 이해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긍정정서이야기가 어른대상과 또래대상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두 이야기의 값을 더한 후, 각 정서이야기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표 4> 정서의 종류에 따른 실제정서 이해와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차이

		<i>N</i>	<i>M</i>	<i>SD</i>	<i>df</i>	paired- <i>t</i>
정서표현규칙 이해	긍정정서	144	1.14	.79	143	-6.94***
	부정정서	144	1.66	.60		

*** $p < .001$

정서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규칙 이해를 살펴본 결과, 긍정정서이야기의 평균은 1.14($SD=.79$)이며, 부정정서의 평균은 1.66($SD=.6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ired- $t=-6.94$, $p < .001$). 즉, 유아는 긍정정서 상황보다 부정정서 상황일 때 정서표현규칙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야기 상황에 나타난 정서표현의 대상(어른대상과 또래대상)에 따른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의 차이

정서표현 대상은 긍정정서-어른이야기와 부정정서-어른이야기의 평균을 합하여 어른대상이야기로 구분하고, 긍정정서-또래이야기와 부정정서-또래이야기의 평균을 합하여 또래대상 이야기로 구분하였다. 이야기 상황에 나타난 정서표현 대상에 따라 실제정서 이해와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른대상이야기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두 이야기의 값을 더한 후, 각 이야기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정서표현규칙 이해수준에 대한 어른대상이야기의 평균은 1.26($SD=.66$)이었고 또래대상이야기에서의 평균은 1.54($SD=.62$)로 나타나 유아는 실제정서 이해와 정서표현규칙 이해를 모두 어른과의 관계에서 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aired- $t=-4.84$, $p < .001$).

<표 5> 정서표현 대상에 따른 실제정서 이해와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차이

		<i>N</i>	<i>M</i>	<i>SD</i>	<i>df</i>	paired- <i>t</i>
정서표현규칙 이해	어른이야기	144	1.26	.66	143	-4.84***
	또래이야기	144	1.54	.62		

*** $p < .001$

2. 이야기 상황별 유아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이야기 상황별 유아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분산분석의 결과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이야기 상황별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의도추론 유형					전체
		친사회적 의도	규준유지적 의도	자기보호적 의도	직접표현	기타	
		<i>M(SD)/N</i>	<i>M(SD)/N</i>	<i>M(SD)/N</i>	<i>M(SD)/N</i>	<i>M(SD)/N</i>	
①	남	.57(.53)/7	.50(.53)/8	.85(.37)/7	.31(.47)/22	.28(.45)/35	.39(.49)/79
	여	.75(.50)/4	.70(.48)/10	.72(.46)/11	.52(.51)/17	.39(.49)/23	.55(.50)/65
②	남	1.00(0)/26	1.00(0)/7	.87(.35)/8	.16(.38)/12	.30(.47)/26	.63(.49)/79
	여	1.00(0)/23	1.00(0)/9	1.00(0)/3	.18(.40)/11	.57(.50)/19	.73(.44)/65
③	남	.84(.37)/13	.82(.27)/13	.90(.30)/11	.70(.47)/20	.68(.47)/22	.78(.41)/79
	여	1.00(0)/15	1.00(0)/11	1.00(0)/9	.61(.50)/18	.58(.51)/12	.81(.39)/65
④	남	1.00(0)/5	.93(.25)/15	.94(.22)/19	.72(.45)/22	.88(.32)/18	.87(.33)/79
	여	1.00(0)/4	.93(.25)/15	1.00(0)/17	.92(.27)/13	.56(.51)/16	.86(.34)/65

이야기 상황: ① 긍정정서-어른이야기, ② 긍정정서-또래이야기, ③ 부정정서-어른이야기, ④ 부정정서-또래이야기

이야기 상황별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의도 추론 유형과 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긍정정서-어른이야기에서의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해서는 의도추론 유형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74, p<.001$), 성의 주 효과 및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정서-또래이야기에서 유아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해서는 의도추론 유형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6.23, p<.001$), 성의 주 효과 및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정서-어른이야기에서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는 의도추론 유형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5.41, p<.001$), 성의 주 효과 및 의도추론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정서-또래이야기에서 유아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해서는 의도추론유형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46, p<.05$),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F=2.98, p<.05$) 의도추론 유형과 성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성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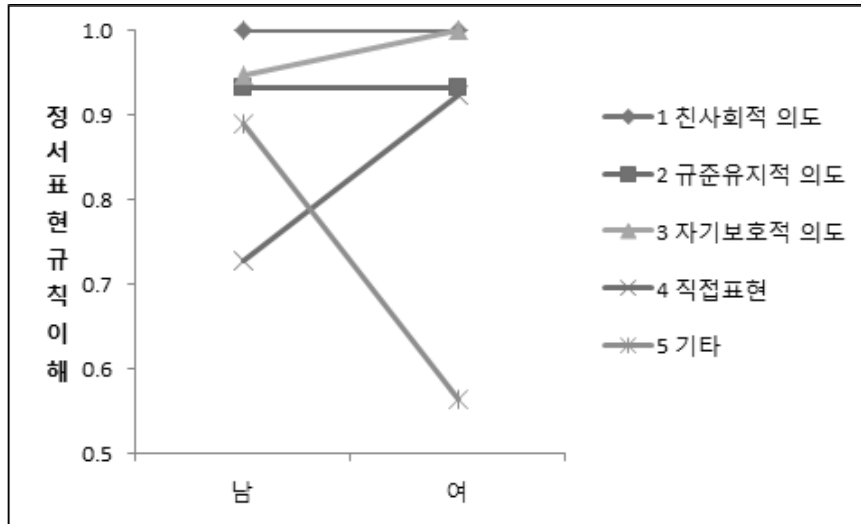
<표 7> 이야기 상황별 의도추론 유형과 성에 따른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변량분석

종속 변수	이야기 상황	SSE	df	MSE	F	
정서 표현 규칙 이해	긍정정서-어른 이야기	의도추론 유형	3.49	4	.87	3.74***
		성	.31	1	.31	1.34
		추론유형 × 성	.39	4	.10	.42
		오차	31.23	134	.23	
	긍정정서-또래 이야기	의도추론 유형	15.52	4	3.88	36.23***
		성	.16	1	.16	1.49
		추론유형 × 성	.53	4	.13	1.23
		오차	3.60	134	.03	
	부정정서-어른 이야기	의도추론 유형	3.18	4	.79	5.41***
		성	.02	1	.02	.16
		추론유형 × 성	.39	4	.10	.66
		오차	19.69	134	.15	
	부정정서-또래 이야기	의도추론 유형	1.43	4	.36	3.46*
		성	.01	1	.01	.06
		추론유형 × 성	1.23	4	.31	2.98*
		오차	13.82	134	.10	

* $p < .05$, *** $p < .001$

<그림 1>은 부정정서-또래이야기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것인데, 친사회적 의도와 자기보호적 의도, 표준유지적 의도의 경우는 성에 따라 정서표현규칙 이해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특히 직접표현을 한 남아와 기타유형으로 분류된 여아의 2개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낮은 정서표현규칙이해 점수를 보였으며 이중 특히 후자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직접표현이나 기타의 의도추론유형을 보이는 유아들은 정서표현규칙이해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부정정서-또래이야기에서 이러한 통념을 깨고 직접표현의 의도를 보인 남아가 정서표현규칙이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의 의도를 보인 여아가 정서표현규칙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약하면, 모든 에피소드에 있어 의도추론 유형은 정서표현규칙이해에 대해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으나 성은 주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특히 부정정서-또래이야기에 있어서는 의도추론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까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의 유형과 정서표현의 대상에 따라 의도추론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이는 특히 부정정서가 또래사이에서 표현될 때 의도추론유형 및 성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1〉 부정정서-또래이야기의 정서표현규칙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의 종류에 따른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정서 이야기보다 부정정서 이야기에서 평균이 높게 나와 유아가 긍정정서보다 부정정서 상황일 때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 정도가 더 높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arris et al., 1986; Joshi & MacLean, 1994; Underwood, 1997; 이미경, 2005). Harris 등(1986)은 4세, 6세, 10세 아동의 실제정서와 표현정서 구별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6세와 10세는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정서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주장을 하였으며, 4세 유아는 부정적인 이야기에서만 실제와 표현정서를 구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Joshi와 MacLean(1994)의 연구에서는 인도의 여자아이들은 성인과의 이야기 상황에서 정서표현규칙 이해의 발달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 숨기기를 잘 수행하였다. 이렇게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에서 실제정서와 정서표현규칙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가 더 큰 기대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유아가 부정정서를 더 잘 이해하고 부정정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다른 정서로 대체해야 하는 것을 아는 능력에 대하여 Miller와 Sperry(1987)는 미국 부모들은 2세 정도의 아이들부터 화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의 통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서표현규칙을 측정하는 이야기 도구는 자신의 정서를 숨기는 이야기에 속한다. 이는 정서를 노출하는 상황에서는 긍정정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정서를 숨기는 위장 상황에서는 부정정서가 더 많이 나타났던 연구결과(심현주, 이순형, 2006)와 맥을 같이한다. 긍정적인 정서

의 경우 특별한 제약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의 경우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감염되게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자기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타인에게 부정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의 종류에 따른 사회화 과정이 부정적 정서를 잘 숨기고 정서표현규칙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표현 대상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를 살펴본 결과, 어른대상 이야기에서보다 또래대상 이야기에서 유아가 정서표현규칙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보다 또래 사이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것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자유로운 놀이 상황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와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와의 상호작용도 있지만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빈도가 크고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래와의 사회적 참조가 더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세 유아의 기본정서 인식 및 표현에 대한 연구(정상녀, 김경숙, 2010)에서 기쁨의 정서와 슬픔의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인식과 표현이 이루어지지만 성장하면서 친구에게로 확대되어 주로 이루어지고, 화의 정서는 성인보다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주 경험되는 정서임을 보여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보다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표현 조절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Zeman & Garber, 1996)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유아가 자신과 다른 위치의 사람들이 지각하는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뜻하는 결과로 유아가 또래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학습기회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의 사회화에 관한 비교문화연구에서 정서표현규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Joshi와 MacLean(1994)은 인도의 여자 아이들은 성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크게 강조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을 항상 주시할 필요를 느끼고, 성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감정을 숨기는 능력이 크게 발달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영국 아이들과의 정서표현규칙의 차이를 가정하였는데, 인도의 여자아이들은 성인과의 상호작용하는 이야기에서 실제와 표현 정서에 대한 구별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외에도 유아는 다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여 정서표현규칙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네델란드와 이란 아동들의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연구에서는(Novin et al., 2009) 네델란드의 아이들은 정서표현규칙을 또래와의 관계에서 고려하는 반면 이란의 아이들은 정서표현규칙을 또래 관계보다 가족구성원에 대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래와의 이야기상황에서 실제정서와 정서표현규칙을 더 잘 이해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사회의 문화가 성인과의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더 강조하는 문화에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해 준다.

둘째, 부정정서-또래이야기에서 정서표현규칙 이해에 대한 의도추론 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유아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는 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정정서-또래이야기에서 의도추론 유형은 기타의 의도로 분류되는 집단의 경우 남아는 정서표현규칙의 이해가 직접표현보다도 높았으며, 여아는 정서표현규칙의

이해가 가장 낮은 집단이 기타의 경우이었다. 부정정서-또래이야기 상황에서 남아는 정서표현규칙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밝히고 왜 자신이 감정을 숨기든지의 의도를 구사하기는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 실제정서와 표현규칙을 잘 구별하는 유아들은 친사회적 의도나, 규준유지적 의도를 사용하지만 잘 구별하지 못하는 아동은 실제 상황이나 감정을 직접 표현하거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정서표현규칙의 이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도 추론을 직접표현 한 남아들은 놀림이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주장을 가질 만큼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보인다. 이는 또래에 대한 정서를 숨기지 못하고 적절한 의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직접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선행연구(장윤정, 신유림, 2006)의 결과와 일치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직접표현 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 조절하는 것이라는 (Jones et al., 1998)점에서 유아 특히 남아에게 적합한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요구된다.

유아가 실제로 느끼는 정서를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왜 그렇게 표현을 바꾼 것인지를 아는 능력은 즉,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간에는 차이가 있다. Naito와 Seki(2009)는 정서표현규칙을 이해하고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주인공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은 아이들이 주인공의 의도적인 입장을 평가하는 관중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과, 유아가 또한 주인공의 이해하기 힘든 의도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실제 행동과 인지가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유아가 처해진 상황과 성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을 이해하는 정도와 의도 추론하는 유형이 달랐던 점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정서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아마다 상황에 따른 표현과 이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일반적인 정서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별 유아의 성향이나 정서성을 이해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로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를 잘 하는 유아는 친사회적 의도, 규준유지적 의도, 자기보호적 의도를 추론하며, 정서표현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는 직접표현이나 기타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가지의 이야기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긍정정서-어른 이야기에서 정서표현규칙의 이해는 친사회적 의도, 규준유지적 의도, 직접표현, 기타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나, 자기보호적 의도를 가진 남아는 여아보다 더 높았다. 부정정서-어른이야기의 경우 친사회적 의도, 규준유지적 의도와 자기보호적 의도를 가진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정서표현규칙의 이해가 높았으나 직접표현이나 기타의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 동기 추론의 발달이 친사회적 동기 추론이나 자기보호적 동기추론 중 어느 것이 선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연구(심현주, 이순형, 2006)를 지지한다. 또한 유아가 정서표현규칙을 결정하는 이유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연구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서의 종류와 정서표현 대상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의 이해가 달라짐을 확인하였고, 의도추론유형에 따라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이야기 상황과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가 어떤 상황에서 정서표현규칙을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교사가 유아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참고 문헌

- 김혜리 (2000). 어린 아동의 실제정서와 표면정서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9.
- 심현주, 이순형 (2006).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과 정서표출 동기 추론. **인간발달연구**, 13(4), 33-53.
- 이미경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승은 (2011). 유아기 정서표현규칙과 정서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4), 121-142.
-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41-63.
- 장윤정, 신유림 (2006).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 유아의 성, 정서표현의도 및 정서상황과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44(5), 49-58.
- 정상녀, 김경숙 (2010). 3세 유아의 기본정서 인식 및 표현에 대한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499-537.
- 정임숙 (2008). 아동기 정서 표현 규칙 이해의 발달과 그 관련 변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 유안진 (1998). 부모의 정서규제와 아동의 정서표현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한혜원(2003).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Banerjee, M. (1997). Hidden emotions: Preschooler's knowledge of appearance-reality and emotion display rules, *Social Cognition*, 15(2), 107-132.
- Begeer, S., Banerjee, R., Rieffe, C., Terwogt, M. M., Potharst, E., Stegge, H., & Koot, H. (2011). The understanding and self-reported use of emotional display rules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ognition and Emotion*, 25(5), 947-956.
- Carlo, G., Knight, G. P., Eisenberg, N., & Rotenberg, K. J. (1991). Cognitive processes and prosocial behaviors among children: The role of affective attributions and reconcili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56-461.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309-1321.
- Cole, P. M., & Tamang, B. L. (1998). Nepali children's ideas about emotional displays in hypothetical challe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40-646.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73-100.
- Davis, T. (1995).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660-667.
- Gardner, D., Harris, P. L., Ohmoto, M., & Hamazaki, T. (1988). Japanese children's

-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2), 203-218.
-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03-108.
- Gopnik, A., & Astington, J. W.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presentational change and its re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false belief and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Child Development*, 59(1), 26-37.
- Gosselin, P., Warren, M., & Diotte, M. (2002). Motivation to hide emotion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4), 479-495.
- Gross, A., L., & Ballif, B.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from facial expressions and situations: A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1(4), 368-398.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4), 895-909.
-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4), 1209-1222.
- Josephs, I. E. (1994). Display rules behavior and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4), 301-326.
- Joshi, M. S., & MacLean, M. (1994). Indian and English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65(5), 1372-1384.
- Kieras, J. E., Tobin, R. M., Graziano, W. G., & Rothbart, M. K.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Psychological Science*, 16(5), 391-396.
- Matsumoto, D. (1990).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isplay rules, *Motivation and Emotion*, 14(3), 195-214.
- Miller, P. J., & Sperry, L. L. (1987). The socializ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Merrill - Palmer Quarterly*, 33(1), 1-31.
- Misailidi, P. (2007).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The role of second-order intention, *Hellenic Journal of Psychology*, 4, 36-51.
- Moses, L. J., & Flavell, J. H. (1990). Inferring false beliefs from actions an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1(4), 929-945.
- Naito, M., & Seki,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cond-order false belief and display rules reasoning: The integration of cognitive and affective soci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Science*, 12(1), 150-164.
- Novin, S., Banerjee, R., Dadkhah, A., & Rieffe, C. (2009). Self-reported use of emotional display rules in the Netherlands and Iran: Evidence for sociocultural influence, *Social Development*, 18(2), 397-411.
-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424-429.
-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4), 1504-1513.

Underwood, M. K. (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3(4), 610-634.

Underwood, M. K., Coie, J. D., & Herbsman, C. R. (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2), 366-380.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3), 957-97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that appeared in the episodes in understandings of the emotional display rules according to the types of emotions and subjects for expressing emotion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intention reasoning types and gender on children's understandings of the real emotions and emotional display rules are explored. 144 4-5 year old children in Chungbuk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al intervie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comprehended the emotional display rules more clearly in a relationship with peers than adults. In terms of a type of emotion, it was the negative emotions rather than positives ones that those children understood better for real emotions and emotional display rules. Second, the main effect of the intention reasoning types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display rules appeared significant in all episodes. Especially, in negative emotion-peer episode, children with different types of intention reasoning showed a different level of understanding emotional display rules depending on gender of the children.

▶*Key words* : *emotional display rules, episodes, types of intention reasoning*

논문투고 2015. 08. 15.
수정원고접수 2015. 10. 15.
최종게재결정 2015. 10. 17.